

해외업체

국내 市場 受注 경쟁 치열

早期 경보기 도입 入札…美 3社

東西 화해무드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주요 防産市場으로 浮上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중조기경보체제 현대화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도입 추진 중인 공중조기경보기의 受注를 위해 미국의 그라만사와 보잉사, 록히드사등 3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사진은 그라만사의 E-2C Hawkeye, 아래사진은 보잉사의 E-3 AWACS



東西 화해무드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가 주요 防産市場으로 浮上하고 있다. 이는 세계 군수시장의 물량축소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외에는 東南亞등 제3세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중조기경보체제 현대화계획」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도입 추진 중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수주(受注)를 위해 미국의 그라만(Grumman)사와 보잉(Boeing)사, 록히드(Lockheed)사등 3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기종으로는 그라만사가 E-2C 호크아

이機, 보잉사가 E3 AWACS기, 록히드사가 C-130 개량기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종선정의 주요 변수는 기술이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85년부터 공중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미국의 3개社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현지방문을 통해 기능테스트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경보기의 대당 가격은 특수한 옵션장비가 장착되지 않았을 경우 5천만불(90년도 시가) 선으로 전망되며, 조기경보기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킹의 새로운 모습. 기존의 S-3 조기경보기보다 전투시 훨씬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해주며, 기존 S-3 바이킹의 장점인 비행중 재급유, 조종사 탈출기능, 보조엔진 장치, 낮은 갑판손상율과 1만3천여의 비행수명시간등은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美 록히드, S-3 개량형 조기경보기 외형설계 확정

록히드 항공시스템社(LASC)는 LTV 항공방위社와 공동으로 美 해군이 운용중인 항공모함용 조기경보기의 대체기종으로 제안한 개량형 S-3 공중 조기경보기의 외형설계를 최근 확정했다.

록히드와 LTV가 공동제안한 설계에 따르면 항공모함용으로 성능이 입증된 S-3 조기경보기(一名 바이킹) 기체 상부의 삼각형 지붕쪽

으로 전자스캔 어레이(ESA) 레이다를 넣음으로써, 조종사가 주변 360도 전체를 주시할수 있도록 하였다.

록히드社의 John Mc Ginnis씨에 따르면, 개량형 S-3 조기경보기는 시스템 성능, 성장가능성, 항속거리 및 체공시간, 비행속도, 고도 등이 향상될 것이며, 지원요구사항 및 유지보수비용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F-22 美 공군 차세대 전술전투기 외형 디자인 결정

美 공군 차세대 전술전투기로 선정된 F-22기의 외형디자인이 최근 결정되었다.

F-22기는 록히드 항공시스템社와 보잉사 및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공동개발중이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그룹의 프랫 앤 워트니社에서 F-22기용 F119-PW-100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美 공군 차세대 전술전투기 경쟁시 제시한 YF-22 원형기와 현재의 F-22기의 차이점은 오른쪽 <표>와 같다.

(자료제공 : Communications Korea)

구 분	F-22 (현재 개발중)	YF-22 (원형기)
다이아몬드형 날개폭	44피트 6인치 (기동성과 아음속 비행효율 향상)	43피트
날개 면적	840 평방피트	840평방피트
날개 끝 각도	42° (기동성 향상)	48°
날개 밑 동 두께	감소(마하에서 항력 감소)	
날개 만곡	변형(초음속 기동성 향상)	
수직꼬리날개 면적 (한쪽면 기준)	89평방피트 (무게 및 항력 감소)	109평방피트
기체 높이	16피트 5인치	27피트
흡입구(Inlet Lip)	YF-22보다 약 1.5피트 후미로 이동 (무게감소, 안정성 제고 및 제어력 향상)	
조종석	YF-22보다 앞쪽으로 이동하고 機首를 더 뭉툭하게 변형 (레이다 성능 및 조종사의 觀界 향상)	
전장(全長)	62피트 1인치(25인치 감소)	64피트 2인치
기미(機尾) 부분	동체후방과 유선연결	별도 분리